

# 教育自治制以後 濟州道 教育概觀

— 教育內容 및 方法中心 —

吳 曠 鍾

〈目 次〉	
I 序	3. 單位學校 教育目標의 設定
II 教育課程 運營의 深化	4. 學習不振兒 指導의 努力
1. 教育課程의 改編	IV 民族主体性 教育의 發展
2. 教育課程의 補完	1. 國籍있는 教育의 強化
3. 學問中心教育課程으로의 改編	2. 反共道德教育의 強化
III 教授-學習方法의 改善	3. 國民教育憲章과 教育
1. 教科別 指導方法의 改善	4. 村마을 教育의 強化
2. 教授-學習過程의 改善	

## I 序

우리나라에서도 各 道水準의 地域單位教育發展史를 편찬하고 있고, 本道에서도 金鎭에 教育委員會가 主管하여 濟州道 教育史 편찬사업을 벌이고 있다. 「濟州道 教育史」를 편찬하는데 있어서 一次의 大 問題는 濟州教育 發展의 主導的 흐름을 어떤 角度에서 보느냐, 즉 史觀의 問題가 있으며 史觀問題 以前의 史的 資料의 綜合이라는 立場에서만 물체 라도 이기에는 몇개의 方法的 問題가 尙在될 수 있다.

첫째, 時代的 區分의 問題로, 둘째, 教育活動의 關聯內容範圍를 어떻게 限定하며, 그것을 어떻게 分類, 項目化되느냐이다. 그러나 이러한 問題는 濟州道 教育史를 綜合的으로 서술할 때의 最終的인 問題이다.

셋째, 위 두 문제 以前에 先行하여야 할 일은 任意的 時代別로 史的 資料를 수집하고 綜合하는 事이다. 이러한 事을 위해서 問題가 되는 것은 全國水準의 教育 모습 속에 濟州道 教育의 모습을 찾아 밝혀내는 事이다. 全國水準의 教育의 모습은 韓國教育史에 의해 서술이 되어 있으며 濟州道 教育史는 韓國教育史의 흐름 속에 濟州道 教育의 特殊한 모습을 기술하는 작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問題는 教育의 內容과 方法을 서술할 때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本稿는 濟州道 教育史 서술의 基礎가 되는 史的資料의 수집이라는

觀點과 韓國教育의 흐름속에 濟州道 教育의 特殊한 모습과 關聯된 內容을 말한다는 觀點에서 이루어졌다.

우리나라 教育의 民主化는 教育自治制의 實施로 구체화 되었다. 1952年 5月 24日에 市·郡教育委員會 委員이 선거된으로서 시작되었고 다국 이듬해 6월 5일에는 그들의 申에 의해서 교육감이 추천되었고 教育自治制는 본 體制에 오르게 되었다.

教育自治制는 1961年 9月 「教育에 關한 임시특례법」에 의해서 그 기능이 정지당했다가 1963年에 現體制의 教育委員會의 기능이 復活되었다. 따라서 현재 教育의 흐름은 1963年 教育自治制 以後의 맥락속에서 기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教育의 民主化는 教育改革運動으로 나타났으며, 그간 教育現場에서 빈도 높게 다루어진 主題는 學習指導法, 教育課程, 道義教育, 教育測定·評價, 生活指導, 鄉土學校, 지형학교, 교과교육학, 躰身교육, 국제이해교육, 教育계획 및 教育理念 論議등이다.<sup>1)</sup>

따라서 本稿는 濟州道 教育發展史를 기술하려고 할때 그 일부분이 되는 1960年代 以後의 濟州道 教育內容과 方法의 研究를 기술하려고 試圖했으며, 資料수집적인 立場에서 기술했다. 그 內容範圍에 있어서도 教育課程, 教授-學習指導, 民族主体性教育에 限定해서 考察했으며, 文獻, 關聯資料, 面談 등을 통해서 資料를 수집했으나 資料로서 客觀성을 確保하기 위해 가능한 活字化된 內容만을 引用하였다.

## II 教育課程 運營의 深化

解放後 교육정책의 우리나라의 教育課程 運營은 크게 “教授要目 時代”, “教科課程 時代” 및 “教育課程 時代”의 셋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教授要目時代와 같은 美軍政 派 教授要目 制定 委員會는 組織上의 教授要目을 制定할지하일 時期를 말하는 것이요, 教育課程 時代와 같은 1949年 12月 31日에 教育法이 公布된 後 教科課程 研究委員會가 教授要目 制定審議會가 위촉되었고, 教科課程 研究委員會에서는 教科의 設定 및 時間配當을 定하여 1954年 3月에, 教授要目 制定審議會에서는 各級學校의 教科課程을 審의하여 1955年 8月에 公布한 以後를 말한다. 教育課程時代와 같은 1963年 2月 15日에 各級 學校 教育課程이 制定公布된 以後를 말한다.<sup>2)</sup>

1) 韓基彥, 增補版 韓國教育의 理念, (서울大學校 出版部, 1974), pp.266~297.

2) 洪雄善, 敎育과정의 이론적기초(培英社, 1971) p.63.

## 1. 教育課程의 改編

5.16革命이 일어나자 革命政府에서는 教育課程 改定의 重要性을 인식하고 이를 추진한 結果, 1963年 2月 15日에 各級學校의 教育課程이 制定 公布되기에 이르렀다.

本 教育課程이 50年代 教科課程에 비해 그 性格上 重要한 의의를 갖는 것은 50年代 教育課程이 전통적인 教育의 立場에서 學校의 教育活動을 國家, 社會, 算數學과 같이 科別活動에 치중하고, 그 學習內容 또한 知識體系, 教科內容을 주로 다룰 것을 기제한 教科型일에 비해 60年代 教育課程은 學生들의 心身의 발달이나 學習에 관한 흥미나 욕구, 즉 內的 要求를 기초로 하여, 그 學習經驗이나 學習活動을 조직하는 소위 經驗型 教育課程이라는 점이다.

종래 우리나라에서는 教科課程이나, 學科課程이니 불리워 왔지만 教科書와 對立된 教科의 部分領域만을 지칭하는 데 불과하고 教科와 教科外의 兩領域을 包攝하여 成立되는 教育의 全體系를 말하는 데 부족하므로 Curriculum을 번역한 말로 教育課程이라 말을 쓰게 되었다.<sup>3)</sup>

本 教育課程에 이르러서야 「教育課程」의 뜻을 分明히 規定하고 있다.

“教育課程은 곧 學生들이 學校의 지도하에 經驗하는 모든 學習活動의 總和를 意味하는 것이다. 따라서, 學生들의 學習經驗 如何에 따라 그들이 어떤 人間으로 成長하게 될지가 決定되는 것이다.

이어서 본 교육과정학에서는 教育課程 全体系構造를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教育課程	}	教科活動
		反共 道德生活
		特別活動

한편 同 教育課程의 解說書에서는 이를 더욱 자세히 說明하여 “教育課程이란, 教育目的을 실현하기 위하여 選擇된 구체적일 문화에 또는 活動을 자라나는 學習者의 發達過程에 맞도록 편성하여 그 學習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체계적으로 표시한 教育의 全策計劃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分明히 지적하고 있다.

3) 文敎部, 國民學校「教育課程 解說」, (교육도서 주식회사, 1963) p. 18.

4) 文敎部, 國民學校 教育課程, 1963, p. 13.

## 2. 教育課程의 補完

### 1) 69年 教育課程의 補完

文教部는 1973年 2月 14日 教育課程을 全面 改訂하기에 앞서 긴급 보완을 필요로 한 部分가리어 1969年 9月 4日 文教部令 第251號로서 各級學校의 教育課程을 部分的으로 改訂 補完 하였다.

改定된 內容 中 國民학교에 해당되는 部分은 다음과 같다.

#### 가) 國民학교 教育課程 時間配當 基準의 變更

총체 反共·道徳을 各 學年 每週 1시간씩 授科하였는데 (국민교육 현장이 강화된 ところ 故로 1시간씩을 따당하여 授科함) 이 시간으로는 國民교육원정을 生活化하여 國民의 生活 實情을 배양할 수 없으므로 各 學年 每週 2시간씩 授科하여 하고, 또 特別活動 時間의 主体 時間에 특별 材料로서 授科되었는 때 이것이 실지 기준이 廢止되므로 주간 시간으로 授科하게 되었다.

이 外의 指定改定은 實질적으로 緊急을 要하는 것에 국한되었지만 特別活動 內容 改定하였다. 그런 教育課程改定은 特別活動의 內容이 主眼이 따라서 ① 學校의 國民 主体가 參加하는 活動의 例外 授科를 中心으로 한 活動의 例를 列한데 다음의 改定 內容이 있다. 그외에 改定改定은 教育課程改定은 總체 特別活動의 領域에 다음과 같은 內容이 더욱 작다 이다.

- ① 學生의 個人能力에 따른 個性의 伸張에 關한 것.
- ② 個人의 地位 向上에 關한 것.
- ③ 職業的 要求에 응답할 수 있는 特殊機能에 關한 것.
- ④ 民主的 集團生活와 生活態度의 養成에 關한 것.

이 教育課程改定은 國民 內容을 축색하는 例로 ① 學級活動 ② 國民의 活動 ③ 特別活動으로 改定 移分을 明示하였다.

## 3. 學問中心 教育課程으로의 改編

### 1) 基本方針

1973年 教育課程 改定에 있어서 그 基本 方針은 國民教育憲章 理念의 구현에 基한 基本 方針은 “國民的 資質 涵養 人間教育의 強化, 知識 技術 教育의 發達”등 셋을 列하고 있다.

#### ① 國民的 資質涵養

- ㄱ. 民族主体意識의 고양
- ㄴ. 傳統을 바탕으로 한 民族文化의 創造
- ㄷ. 個人의 發展과 國家의 興盛과의 調和
- ② 人間教育의 強化
  - ㄱ. 價値觀 教育의 強化
  - ㄴ. 非人間化 傾向의 극복
    - ㄱ) 人間의 존엄성
    - ㄴ) 個人의 獨自性
    - ㄷ) 연대의식의 교취
- ③ 근면성과 協同性의 양양
  - ㄱ. 근면성
  - ㄴ. 協同性
- ④ 知識·技術教育의 새신
  - ㄱ. 基本能力의 培養
  - ㄴ. 基本概念의 파악
  - ㄷ. 판단력과 창의력 함양
  - ㄹ. 産學協同 教育의 強化

本 教育課程<sup>5)</sup>을 初級교육과정과 比較하면 그 특징은 知識을 強調하며 더 나아가서 知識의 基本概念의 파악을 強調하는 데서 찾을 수 있으니 국민학교 教育課程 解說書<sup>6)</sup>에서는 基本概念의 파악의 重要性을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知識에는 지역적인 個別知識, 個別知識을 集約적으로 包括하는 典型的 또는 代表的 知識, 事實이나 現象들에 共通的이며, 比較적 變하지 않는 原理, 法則 등이 있는데, 教育 內容으로서 바람직한 것은 要素次元의 個別的 知識이 아니라, 核心的이고 構造性을 가진 本質知識, 즉 教材의 構造이다. 教材의 構造는 中心觀念과 基本諸要素로 이루어진 教材의 組織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경우에는 그와 같은 知識에 관하여 關係的 法則적인 것을 追求 해가는 方法的인 것 까지도 포함한다. 그래서 새 教育課程에서는 知識의 構造를 이루는 基本概念과 그 關係를 理解하고 知的인 研究의 方法을 익힐 수 있도록 指導內容을 精選해야 한다고 強調하고 있다. 이와 같이 知識을 精選하고 教材를 構造化하여 가르치면 다음과 같은 잇점이 있다.

- ① 理解가 잘 되고 기억이 오래 간다.

5) 文敎部, 國民學校 教育課程, (교육도서주식회사, 1973) p.95~7.

6) 文敎부, 국민학교 教育과정 해설서, (교육도서주식회사, 1973) p.31~32.

것에 보충할 많은 知識을 배울 心算이 없으므로 知識量의 過多에서 오는 理解의 遲延을 막을 수 있고, 둘째로 個別知識間의 法則性과 相互關係를 教材組織을 배우는 것이므로 理解가 容易 되고 記憶도 容易하다.

(2) 轉移力이 있으므로 뒤에 學習하는 各相關 教材에 대해서도 理解가 빨라진다. 教材構造를 파악하면 유사한 다른 教材에 곧 응용할 수 있으므로 升(升)로 주고 降(降)으로 하려는 효과를 올릴 수 있다.

### Ⅲ 教授-學習方法的 改善

#### 1. 教科別 指導方法的 習得에 對한 努力

學習指導에 있어서 教師들이 關心을 갖는 데로서 60年代는 주로 教科性格의 正確한 理解, 그에 따른 教科마다 內在한 教科마다의 특수한 指導方法的 習得, 그리고 教科內容의 폭넓은 理解에 對한 努力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대한 구체적 例를 紹介한다면,

1968年 當時 翰林女高 教師 梁文政<sup>7)</sup>은 英語教育의 問題點을 “言語教育의 窮極의 目的은 實用的 教養의 價値를 同時에 充足할 수 있는 基礎위에 마련되어야 한다. 1963년에 改正된 新 英語教科課程에서는 이 原則이 잘 反映되고 있다. 즉 英語教育의 目標은 첫째, 日常生活에 使用되는 英語를 理解하고 말할 수 있는 能力의 發達, 둘째, 英語를 外國語로 使用하는 國民의 生活과 慣習을 理解하고 國際理解와 協助을 增進하는 手段을 터득하는데 在하고 있다. 이 目標을 達成하기 위해서 學習者는 言語의 一般的 技能, 즉 Hearing, Speaking, Reading, Writing의 能力을 充分로 發展시켜야 하며 教師의 效果的 指導가 要된다. 이 學生들의 實際 英語工夫는 말을 배우기 않고 다만 大學入試에 功을 하고 있다. 이 大學入試에 功을 한 文法, Idiom, 解釋問題를 주로 다루고 있는 한 學生과 教師들을 實用은 떠나서 理論에 執着的 英語學習에 功을 하게 된다. 이 是를 改善和善化圖으로 온 五十名의 英語教師들이 八個月間 各 高等學校에서 實際 英語授業에 行하고 다시 지난 春 太郎에서 가진 세미나에서 여러 次 비판의 소리였다. 우리나라의 英語教育의 現實을 극단적으로 表現한 名句를 引하고 보겠다. Grammar translation Method가 批判을 受하며서도 아직 學習指導 主要 部分을 이루고 있으며 言語技能을 가장 效果的으로 發達시킬 수 있다는 Direct Method or Practice Method가 벌써 導入되어 널리 活用하고 있으나 充分히 活用하지 않는 技術的 問題가 남아 있다고 본다”라고 그의 당시의 入試 및 위한 文

7) 梁文政, “英語教育의 問題點”, 교육계주 제3호(제주도 교육위원회, 1967) pp. 118~123

法 및 독해위주의 英語教育을 비판하였다. 이어서 그는 文型練習, 어휘와 綴字指導, Hearing과 Speaking指導, Reading과 Writing의 指導方法論을 펴면서 外國人과 직접 쓰고, 말하는 기회를 갖는 特別活動을 강조하였다.

이와같이 教授—學習方法의 改善에 관한 努力은 教科內容의 폭넓은 理解가 教科마다 內在한 指導方法의 습득에 重點을 두었다.

國民學校의 경우 지금의 教育現實도 程度의 차이는 있지만 教科教育의 性格이 그대로 잔 반영되지 않는 教科로서 「實科」를 들 수 있다. 「實科」하던 農業系의 사육계배와 직질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에 한정된 교육활동이 되는 경향이 있었다.

1968年 當時 귀덕국민학교 校監인 姜經胤<sup>8)</sup>은 國民學校 實科教育의 性格이 誤導되고 있는 現實을 비판했다. “作物栽培나 飼育을 하는 것만이 實科教育이 아니다” “農業系 出身 教師를 實科教師로 호칭하거나 實業系 또는 생산제다 하여 사부를 분장시키든” 그 당시의 教育 現實을 비판하면서 實科教育의 概念, 實科教育의 目標 實科의 指導內容을 소개하고 實科課程의 地域化 方案을 제시하였다.

이 當時에는 모든 教育活動이 入試爲主로 운영되었고, 修練帳中心의 學習活動이 教育現場을 지배하던 時代로 實科도 이기서 제외되지 않는 에피소드를 이 글에서 소개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과일에 ○표하시오.

- ① 감귤    ② 복숭아    ③ 호두    ④ 파인애플

同學年의 B教師가 A教師에게 맞은 답이 어느 것입니까? A教師, 修練帳대로 파인애플입니다. B教師, 우리 제주도에서 파인애플이 生産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어울어붙어 넘겼다.”

## 2. 教授—學習過程의 改善

教授—學習이라는 複合語는 비교적 새로운 것으로 그 前에는 「學習指導」와 教授라는 말을 혼용해 왔다. 구태어 그 區分을 따지 본다면 「學習」은 英語의 Learning을 번역한 말로서 兒童中心의 立場에서 사용된 용어이고 「教授」는 英語의 Teaching의 번역으로서 教育者中心의 用語라 할 것이다. 敎育과 連綿되는 傳統的 教育에서는 教育者가 中心이 되어서 直接으로 教材를 被教育者에게 媒介傳達하는 形式을 취하였기 때문에 教授라 말하였던 것이다.

이에 反하여 進步的인 教育哲學의 據頭는 教育의 主体를 教師에게서 兒童으로 전환시켰다. 解放後 우리 나라에도 새교육이라는 이름으로 導入된 兒童中心 教育思想과 함께 教師

8) 姜經胤, “國民學校 實科教育 운영과 指導上의 問題”, 上揭書, pp. 125~132

中心의 語句의 標準은 教授法을 對象으로 學習指導하는 點이 在한다. 因하자면 教授에서 學習指導로, 教授法에서 學習指導法으로의 用語轉換은 教育의 主體는 教師로부터 學生에게 옮긴다는 教育觀의 反映이다. 그것은 他에서 考해된 點으로서 一般的으로 行하여 學習에서 自進의의 進行의의 主體的으로 行하는 學習으로의 進道이다.

그러나 實驗室學習과 教授學習間의 關係는 如何, 學習과 教授의 性格上 如何인을 學習理論과는 別로의 教授理論의 開發을 촉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는 1970年代에 접어들면서 實際 授業狀況에서 教授와 學生의 相互 補的인 關係에 注意하게 되었고 用語에 있어서는 教授와 學習을 複合連結시켜 「教授—學習」라는 用語를 일반적으로 使用하게 되었고 따라서 本章의 本項目도 教授—學習方法으로 表現하고 있다.

### 1) 教授—學習過程

一般的으로 60年代 以後 오늘날 까지 적용되고 있는 『教授—學習過程』은 다음과 같은 教授—學習計劃을 세우고 이의 절차에 따라 教授—學習過程을 전개하고 있다.

#### 〈學習指導(補導)案의 形式(例)〉

##### ○○과 學習指導案

단	일	요일	교과
월	학년	단	
	지도교사		일

1. 단월명 :
2. 단월설정의 취지
  - 1) 사회적 관점에서
  - 2) 학생의 관점에서
  - 3) 교과외 관점에서
3. 단월의 목표(교수—학습목표)
4. 單元의 學習構造
5. 他學年, 他教科와의 關聯
6. 單元의 教授—學習計劃

次時 主要目標(內容)	資 料	關 冊 , 其 他
1.		
2.		
3.		(분시)

7. 本時 教授—學習計劃

1) 本時 學習主題

2) 學習目標

段 階	教 授 (學 習) 活 動	資 料	留 意 點
導 入 ( )분	○ 前時 學習의 想起 ○ 學習目標의 제시 ○ 學習計劃		
展 開 ( )분	※ 여러가지 教授—學習活動이 順序에 따라 展開된다. : 講議, 질의응답, 토의, 조사, 관찰, 實驗, 實習, 各種表現活動, 감상활동등		
整 理 ( )분	○ 整理, 一般化 ○ (形成的 評價) ○ 課題제시 ○ 차시 학습예고		

教授—學習計劃에 포함된 內容이나 計劃의 節次 또는 方法은 專門의 專門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教科 또는 教授目標에 따라 다양하게 計劃되고 있는 것이다.

本時 教授—學習過程 展開의 節次에 있어서도 흔히 ① 導入 ② 展開 ③ 整理의 節次를 보이고 있지만 教科에 따라서 다른 節次를 취하고 있다. 例를 들어 탐구학습을 위한 자연과의 경우 ① 안내 ② 가설설정 ③ 정의 ④ 탐색 ⑤ 증거제시 ⑥ 일반화의 단계를 거치는 경우도 많다.

教授—學習指導에 있어서 教師들의 관심을 갖는 일로서 60年代末까지는 주로 教科의 性格 및 內容의 올바른 理解와 그에 따른 教材의 特殊性을 살린 各教科의 특수한 指導方法의 習

得, 特定한 教授—學習指導 形態의 적용 등이 있다.

여기서 特別한 만한 일은 教授—學習形態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特定한 교수—학습 형태가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같은, 이들을 달리하는 指導形態가 教育一線에 適用되었는 사실이다.

이들 教授—學習의 特質의 類型을 파악하는 觀點을 綜合해 보면

① 어떤 學習 또는 教授過程에 의한 授業인가, 즉 問題解決學習의 方式을 취하는가 혹은 注入式 系統學習의 方式을 취하는 가.

② 授業의 主體를 教師와 兒童과의 어느 편에 두고 있는가, 즉 教師中心의 授業을 취하는 것과 兒童中心의 方式을 취하는 것,

③ 授業展開에 있어서 어떤 學習活動을 中心으로 하고 있는가, 예를 들면 주로 講話法에 의하는 것, 問答法에 의하는 것, 討議法에 의하는 것, 시청각교구에 의하는 것, 實驗에 의하는 것 등.

④ 授業에서 教科書의 地位가 어느 程度로 고려되고 있는 가, 즉 教科書 中心과 教科書는 資料로 自由롭게 사용하는 授業.

⑤ 집단과 個人의 關係를 어떻게 생각하며 授業을 위해서 學習집단을 어떻게 조직하고 있는 가, 즉 一齊學習, 個別學習, 分黨學習, 能力別學習 등.

이렇게 教授—學習過程에 關聯된 變因들은 복잡 多樣한 것으로 이고 狀況에서나 學習 效果의 指導方法 또는 授業形態는 파악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目標, 教材內容, 教師, 學生, 學習環境의 相互作用 關係를 잘 파악하고 그 상황에 맞는 지도方法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特定한 授業形態를 적용함으로써 教授의 效果를 높여주는 情形이 일반적이었던 데도 1968年 충청남대학교의 양기휴 교사는 이의 방향성을 지적하면서 目標, 教材내용, 학습자, 학습환경 등의 諸變因들의 複合的인 相互作用 關係를 고려한 學習指導를 주장 그 方法을 綜合學習指導라 하여 紹介하고 있다.

즉, 1) 예비학습, 2) 계획학습, 3) 분석학습, 4) 개인학습, 5) 보조학습, 6) 발표학습, 7) 정취학습, 8) 조작학습, 9) 발전학습 등의 特性을 綜合的으로 고려한 지도방법을 주장하였다.

70年代 以後 우리 나라에서도 學習理論과 教授理論의 分離, 獨立, 發展에 대한 努力, System Approach(體制接近)의 教育에의 導入, 그에 따른 教授過程 모델定立에 대한 努力, 韓國教育開發院의 教授學習過程模型의 一線모형등의 情形에 의해 一線現場에서도 教授—學習過程에 대한 關心과 그에 대한 方法論이 많이 보급되었다.

參考로 한국교육개발원의 授業過程 一般模型을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 ① 計劃단계 : 教師가 어떤 學習課題를 위해 授業을 計劃하는 단계
- ② 診斷단계 : 學生들이 그 學習課題에 들어가는 데 必要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診斷하고 그에 따라 必要한 교정조치를 하는 단계
- ③ 指導단계 : 本 授業이 이뤄지는 단계
- ④ 發展단계 : 指導단계에서 學習된 內容에 대한 學生들의 學習成就度를 평가하고 그 結果에 따라 深化 또는 補完學習의 기회를 제공하는 단계
- ⑤ 評價단계 : 그 學習課題의 授業結果를 綜合的으로 評價하는 단계

### 3. 單位 學校教育目標의 設定

單位學校 수준에서 그 學校의 教育方向을 1次的으로 決定하는 것은 單位學校 教育活動의 始發点이요, 出發点이다 .

學校教育目標을 設定하는데 關聯되는 資源은 當該學校 教員들의 集團思想과 集團過程을 거쳐 文教部 方針방침, 地域社會의 特性, 當該學校의 特性, 學生들의 特性 등에서 綜合的이고 合理的으로 設定되어야 할 것이다.

그 學校의 教育目標 設定이 어떤 過程과 어떤 資源을 거쳐 樹立되느냐는 것은 그 學校가 얼마나 實際的이고 실현적인 教育活動을 펴고 있는지의 尺度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學校의 教育目標은 校長에게 있어서는 學校經營의 指標가 될 것이고 教師들에게는 實際的이고 실현적인 즉 具體的인 教育活動의 方向과 內容을 제시해 주기 때문이다.

本道에서는 이미 60年代에 單位學校 教育目標 設定에 高度의 合理性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例를 서귀포민학교의 1967學年度(校長 허경옥)의 教育目標 設定過程의 實際<sup>9)</sup>를 紹介한다.

上記 學校에서는

學校單位 教育目標을 설정하기 위하여 研究委員會 및 研究分科를 그 學校의 全教師에 의해 구성하고 다음과 같은 研究分野와 절차에 의해 그 學校 教育目標을 설정하였다.

#### (1) 第一段階

教育目標 設定을 위하여 5個 研究分野의 決定

9) 許京玉, “本校教育目標 設定過程의 實際”, 교육제주, 제3호, 1967, pp.58~75.

가) 學習자의 實態

- 1) 學習자의 生活環境
- 2) 學習자의 興味要求 傾向
- 3) 學習자의 身體發達 狀況
- 4) 學習자의 日常生活
- 5) 學力 實態

나) 社會實態

- 1) 住民의 教育에 對한 要求
- 2) 地域社會의 今後의 課題

다) 學校實態

- 1) 學校現況

라) 教科課程

- 1) 教科의 노력점

마) 獎學目標과 方針

- 1) 獎學方針
- 2) 本道教育 三大運動
- 3) 本部 當面課題

(2) 第二段階

이상 5個分野, 12個 項目에 대하여 問題內容을 11 種分類 項目으로 分類하였다.

(3) 第三段階

分科別로 檢討된 內容에 의하여 問題의 分析과 222個의 問題點을 抽出하였다.

(4) 第四段階

第三段階에서 分析結果와 問題點에서 教育目標 樹立資料를 整理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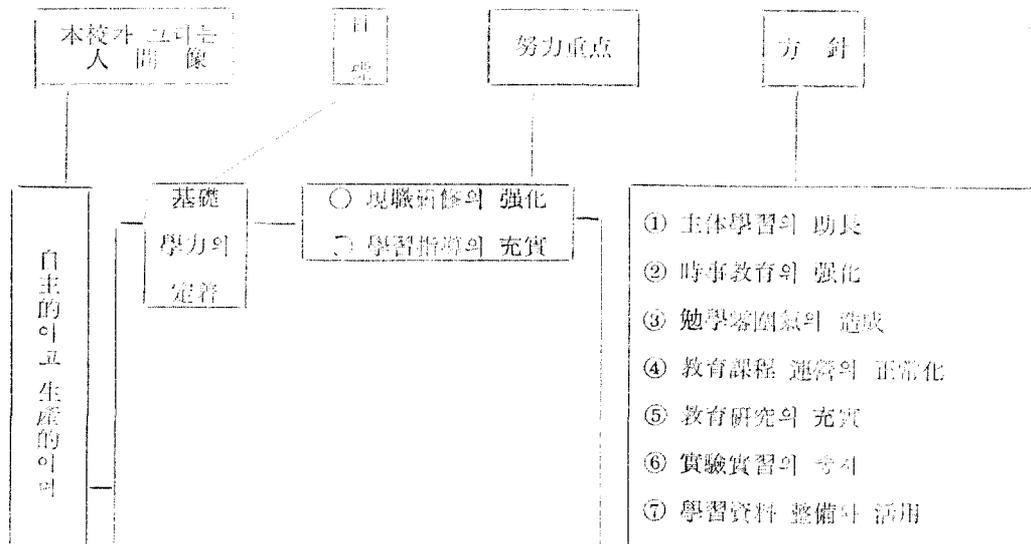
問題點 및 精選資料의 綜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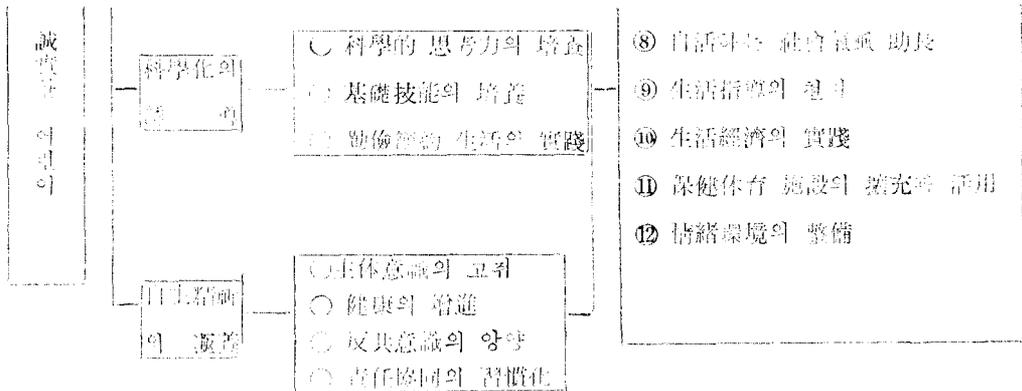
研究分野	調査內容	分析結果	問題點	精 選 資 料
學習자의 實態	① 環 境		13%	1. 言語醇化
	② 興 味		8%	2. 교육관심촉구
	③ 身體發達		5%	3. 自律學習態度
	④ 日常生活		13%	4. 독서지도      5. 체력증진      6. 人事指導
	⑤ 學 力		59%	7. 協同生活      8. 學習指導充實 9. 實科, 藝能科, 自然科指導充實 10.  학습품 節約

研究分野	調査内容	分析結果	課題点	精選資料
社會實態	(6) 住民의 要求 (7) 地域社會問題		8件 14件	11. 学力向上 12. 生活改善 13. 郷土愛化 14. 生活改善
學校實態	(8) 本校現況에 서의 要求		20件	15. 學習資料의 整備와 活用 16. 장서확충
教科課程	(9) 教科의 努力 重点		39件	17. 教科課程運營의 正常化 18. 個性의 伸張
獎學目標 의 方針	(10) 獎學方針 (11) 本道教育 三大運動 (12) 本道當面 課題		28件 9件 6件	19. 건전한 學風造成 20. 생활하는 教育추진 21. 民族主体性確立 22. 예절운동 23. 啓發運動 24. 勉學運動 25. 삼학교육운동 26. 빛나는생활 전개

(5) 第五段階

第四段階에서 精選된 資料를 綜合하여 다음과 같은 教育目標을 수립하고 그 方針을 정하였다.





(6) 第6段階

教育目標에 도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具顯案을 작성하였음.

教育目標	努力重點	차 이	關 聯	事 業 名	目標量	實 踐	施 行 時 間											
							3	4	5	6	7	8	9	10	11	12		
基本學力 의 定着	現職研修 의 強化	I	III-9	學校公開 現職研修 研究發表 學校經營 진단	1회 6회 7회 7회													

1) 教授目標의 設定 및 陳述

다음과 같이 있어서 한 單元 또는 시간별 教授目標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資源은 文敎部에서 제시하는 教育課程과 教科書가 되고 있다. 물론 훌륭한 教授目標이 學校 및 地域社會의 실정이나 學習集團의 특성에 적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지만 이미 教育課程 폭포나 教育內容, 教科書가 채택된 제시하는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 상에서 教授目標을 설정하는 教師가 1次的으로 검토해야 하는 내용은 教育課程 및 教科書에 제시된 目標 및 內容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文敎부가 제시하는 教育課程에서 教育課程 構成의 單 元 폭포나 教科別, 學年別 目標과 그 주요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종 教科書는 또한 이러한 내용들이 몇 개의 學習單元으로 구성되어 教授-學習에 적절한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教師가 教授目

標을 설정하는 것은 教育課程의 各單 目標들을 고차시에 배치된 敎育內容 분식에 기초하여 敎授—學習狀況에 맞도록 細細化하고 學習者와 지역사회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이다.

教育目標은 「내용과 행동으로 轉술된다」라는 생각이 일반적으로 一線에서 많이 用어져서 盛行되어 왔으며 그 施行過程에서 1960年代에 一線敎師들에게 論議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할 수 있다」보다는 「……할 수 있게 한다」로, 「……을 안다」보다는 「……할 수 있게 한다」로 教育目標을 轉술해야 된다는 주장의 優勢한 陣이었으나 現在는 尙도 字句의 問題는 문제삼지 않는 陣이다.

1970年代에 들어서면서는 教育工學者들과 評價專門家들에 의해 敎授目標의 細分化 問題가 거론 강조되면서 本道 教育現場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는 경향이다.

敎授目標의 細分化 問題에 있어서는 梅이저(R. F. Mager)의 理論에 중히 관심을 모으고 있다. 梅이저는 敎授目標 陳述에 대해서 첫째 ① 도착점 행동 증거 ② 조건 ③ 수 탁기준의 조건을 갖추어 轉술할 것을 제안 하고 있으며

둘째 敎授目標 陳述의 行動的 用語는 現代의 暗示的 用語(안다, 이해한다, 깨닫는다, 인식한다, 파악한다, 즐긴다, 믿는다, 감상한다)를 明示的 用語(쓴다, 압송한다, 지적한다, 구별한다, 문제를 해결한다, 구성한다, 열거한다, 비교한다)로 轉술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는데 本道 一線의 관심은 一次的으로 그의 둘째 제안인 敎授目標의 行動的 目標을 暗示的으로 陳述하는 問題에 특히 관심을 모이고 있는 경향이다.

#### 4. 學習不振兒 指導의 努力

本道에 있어서 教育委員會가 集中的인 관심을 갖고 거도적으로 추진한 教育的 努力 가운데 重要한 하나가 학업부진아 해소를 위한 지도적 노력이다.

本道에서는 1969年 4월부터 각주도 教育위원회 獎學重點 사업의 하나로 실시된 읽기, 셈하기 학업부진아 해소를 위한 努力을 始發로 現在까지 그에 대한 努力을 집중시켜 오고 있다.

1969年度에 教育위원회에서 정한 읽기와 셈하기 학업부진아 査定基準은 右와 같다. (2~6학년 대상)

##### △ 읽기 학업부진아 기준

1급 : ○받침이 없는 낱말도 그대로 읽지 못한다.

○받침이 없는 낱말 70% 정도 저항을 받음

2급 : ○받침이 없는 쉬운 낱말은 읽으나 어려운 낱말은 그대로 읽지 못한다.

○어려운 낱말 50% 정도 저항을 받음

(3) 1차 이하의 1차 이하의 원자 (정수)  
(4) 1차 이하의 원자 (정수)

3급 : (1) 1차 이하의 원자 (정수)  
(2) 1차 이하의 원자 (정수) 30%

(3) 1차 이하의 원자 (정수)

(4) 1차 이하의 원자 (정수)

4급 : (1) 1차 이하의 원자 (정수) 10% 이하  
(2) 1차 이하의 원자 (정수) 10% 이하

(3) 1차 이하의 원자 (정수)

(4) 1차 이하의 원자 (정수)

※ 원자 基準에 있어 2학년은 3급까지 합격하면 좋기로 간주하고 학업수완은 4급에  
까지 지워진다. 기타 학년(3학년 이상)은 4급까지 합격이 되어야 좋기로 적혀 있다.

△ 算術科 算術수업의 基準表

1급 : (1) 1차 이하의 원자 (정수)

(2) 순서수 및 1순수의 비교 쓰기 (20이내)

(3) 수의 크기 (20이내)

2급 : (1) 순서수 및 1순수의 비교 쓰기 (50이내)

(2) 2위수+1위수 (받아올림 있음)

(3) 2위수-2위수 (가수가 10만위)

(4) 2위수-2위수 (결수가 10만위 받아올림 있음)

3급 : (1) 3위수+3위수 (받아올림 1회)

(2) 2위수-2위수 (받아올림 1회)

(3) 2만, 4만, 5만 수위의 이해

4급 : (1) 2위수×1위수

(2) 2위수÷1위수

(3) 소수나 1위수+소수1위수

(4) 1위수 소수의 진액

(5) 1위수의 기호 이해

※ 1학년 基準에 있어 2학년은 2급까지 합격하면 좋기로 간주하고 학업수완은 4급에  
까지 지워진다. 기타 學年(3學年以上)은 4급까지 합격하여야 좋기로 간주 되어 있다.

△ 實地調査 및 結果分析

1. 實地調査의 基準에 의거 南濟州郡 1929년 國民學校의 實地調査 結果를 보면 다음 <表23>과 같다.

〈표 23〉 임기 學業不振兒 實態調査表 (1969. 4. 10 現在)

學年 級數	2	3	4	5	6	全 體
1 級	1,094명	354	361	209	99	2,417
2 級	495	356	297	194	101	1,453
3 級	244	291	236	227	135	1,133
4 級	—	227	264	237	231	959
全 體	1,923	1,528	1,158	867	566	5,942

① 全 體 全 體 兒童(1학년 以上) 16,237명에 對한 學業不振兒의 比率은 36%

② 全 體 學業不振兒에 對한 學年別 比率은 2學年 31%, 3학년 26%, 4학년 19% 5학년 14%, 6학년 10%.

③ 全 體 學業不振兒에 對한 등급 비율은 1급 41%, 2급 24%, 3급 19% 4급 16%.

※ 위의 分析에 依해 全 體 兒童數의 36%인 相當數의 學業不振兒가 있었다는 것을 辨 別 可 能 性 有 意 學年에 依해 各 學年에서 各 學年으로 轉入率 比較 비율이 낮고 4급으로 轉入率 比較 비율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轉入率 比較 비율은 다음 〈表24〉과 같다.

〈표 24〉 轉入率 學業不振 實態調査 (1969. 4. 10 現在)

學年 級數	2	3	4	5	6	全 體
1 級	1,237명	649	391	256	121	2,654
2 級	621	497	352	232	138	1,840
3 級	—	470	325	212	169	1,176
4 級	—	—	362	347	231	950
全 體	1,858	1,616	1,430	1,047	649	6,600

① 全 體 兒童(16,237)에 對한 不振率 40%

② 全 體 學業不振兒에 對한 學年別 比率, 2학년 28%, 3학년 24%, 4학년 22%, 5학년 16%, 6학년 10%.

③ 全 體 學業不振兒에 對한 等級 비율 1급 40%, 2급 38%, 3급 18%, 4급 14%.

※ 轉入率 學業不振兒는 轉入率에 比較하여 4%의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 3個月 指導後 (69. 7. 31 現在) 4급을 모두 통과한 兒童數는 轉入率에 1,771명, 轉入率에 2,140명으로서 全 體 不振兒에 對한 向上比率은 轉入率에 66%, 轉入率에 65%의 성과를 올렸다.

## Ⅳ 民族主体性 教育의 發展

### 1. 國籍있는 教育의 強化

解放後 現在까지 教育에 있어서 主体性에 대한 論議를 強調하는 階段으로 解放階의 被高을 이루어 進行되어 왔다.<sup>10)</sup>

첫째, 政府樹立後 初代 文敎部 長官의 文敎政策으로 “一民主義 教育”의 強調가 그 첫 階階이다. 이는 一民主義 教育理念으로서 民族主体性을 強調하는 데 있었다.

이런 主体性 問題가 當時 社會的으로 크게 대두된 背景은 獨立國의 國民으로서 모든 民族으로서 民族的 團結과 自主的인 國民精神이 무엇보다도 強調되었던 때이다. 이를 始初로 自由黨 時代 7代 文敎部 政策은 一民主義, 民主主義, 民族主義, 人格, 道義와 같은 精神 개발을 특히 強調했다.

둘째로 1966年 文敎政策 方針으로 民族主体性을 強調할 것을 그 두 번째 目標로 할 수 있었다. 이 때 社會的으로는 經濟的 自立과 亞細亞 半島日國變正當化 問題가 크게 대두되고 있었던 때이다.

이 때 民族主体性의 問題는 割割階級을 克服 政治的, 經濟的으로, 즉 民族的 獨立 問題가 強調되었던 時期의에 文敎部가 主權을 이 民族主体性 研究의 体系化를 試圖하였던 時期이며 民族主体性 問題에 對한 系統 論述, 研究, 發行本이 이 時期에 많이 發刊되었다.

셋째로, 1972年 大韓日報 韓國 民族意識中 “國籍 있는 教育”에 對한 自己反省的 촉구에서 그 始發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1972年度에 民族主体性 問題가 對하여 가장 크게 強調된 問題는 民族史觀 記述의 問題를 들 수 있다. 民族的 自我發見을 隨한 自覺의에 對하여, 韓國的 正當性을 높고 自覺의에 그 強調을 할 때로 할 수 있다.

1972年 3月 24日 大邱에서 全國 教育者大會가 開催되었을 때 이 자리에서 朴世熙 大統領은 “우리 教育의 國籍을 喪자하고 喪하였습다.”

朴 大統領은 彼時에 演說 “우리가 個性을 尊重하며 創意가 自發的인 語詞을 助長하는 教育에 力을 기울여 온 나라를, 國土나 民族에 對한 觀念이 오히려 低劣하게 되었다. 父母에 대한 孝誠이나 老師에 대한 尊敬等, 우리 나라 固有의 美風을 破壞思想을 가르치는 데 중점을 두어 個人의 自由의 權利를 強調할 줄 알지, 國民으로서의 責任과 義務의 完遂, 그리고 協同心과 責任精神 및 自覺정신의 發育가 不足하였음을 痛適하게 알을 수가 없었습니다.”

10) 오경웅, 「우리들의 교육에 있어서」 주제성제년 포럼분석], 논문집 제4집, 제주교육대학, 1974, pp. 37~38

다시 말해서 이러한 사람으로서 오붓한 享樂生活이다 追求하는 市民教育에만 限을 設  
 으며 眞實한 意味에서 우리 傳統과 確固한 國家觀에 뿌리박은 國民教育에는 未合했다고  
 하려 않을 수 없습니다. 酷評을 한다면 우리는 그동안 國籍있는 教育을 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의 教育도 이제는 外國의 教育 形態를 모방하고 追從하는 데서 脫皮하여 國家  
 現實을 正確히 認識하고 올바른 國家觀에 立脚한 教育을 指向해야 할 때가 왔다고 強調하  
 는 바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국가현실에 알맞은 教育, 즉 우리 教育의 國籍을 되찾  
 아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라고 強調했으며 第二回 教育者大會의 致辭에서 “國籍있는 教  
 育이란 우리 民族의 過去와 現實을 올바르게 보는 눈, 즉 民族史觀의 形成과 이를 바탕으로  
 해서 大韓民國의 民族史的 正統性을 올바르게 認識하는 것이 그 核心이다.”라고 明示했다.

이런 일련의 努力은 문교부 장학방침에도 강력히 반영되었다.

“우리에게 가장 緊要한 精神的 要素는, 主體의 民族史觀에 바탕하여 民族主體意識을 確  
 立하고 民族의 正統性을 주철하게 認識하는 일이다. 이와 같은 精神은 「나라의 隆盛이 나  
 의 發展의 根本」이라는 國家와 民族을 알색우는 眞正한 愛國愛族 精神을 함양하는 데서 착  
 트는 것이다.

民族主體意識이란 우리 國民이 우리 國家運命의 主人公으로서 對外的으로 우리의 運命  
 開拓을 위한 自主·自立·自助하는 獨立精神인 것이며, 民族 正統性이란 우리가 바로 南北  
 對話를 推進해 감에 있어서 半萬年 歷史의 悠久한 傳統과 文化遺産 및 實을 이어받아 우리  
 民族의 主體努力을 말한다. (1973學年度 “獎學方針 解說”에서)

韓國人像 形成을 위한 國家觀 定立의 文敎部 獎學方針을 年度別로 보면

〈1970〉 人間의 尊嚴性을 바탕으로 透徹한 反共民主精神을 涵養하고 民族文化의 暢達  
 과 國民倫理의 實踐을 통하여 올바른 國家觀을 確立한다.

〈1971〉 人間의 尊嚴性과 民族主體性을 바탕으로 國民으로서의 透徹한 使命感과 反共民主  
 精神을 昂揚함으로써 올바른 國家觀을 確立한다.

〈1972〉 愛國愛族의 價値觀이 透徹한 國民像을 創造한다. 또한 「國民教育憲章의 生活  
 化로 國家非常事態를 克服하고 民族中興의 歷史的 使命完遂를 위한 價値觀의 確立  
 을 위하여 勸進 努力한다.

〈1973〉 國民教育憲章 理念의 生活化로 教育의 體制를 刷新하고 國籍있는 教育을 強化  
 함으로써 刷新課業 遂行에 앞장서는 誠實하고 能力있는 韓國人을 育成한다.

民族主體性教育, 國籍 있는 教育의 遂行을 위해 이와 關聯해서 특히할 일은 民族史觀의  
 定立과 國史教育의 強化를 들 수 있다.

1973學年度부터 國民學校 5.6學年의 「國史」를 「社會」에서 分離시켰으며 1974學年度부

다. 中·高등학교에서도 國史(愛國)를 主體로 國定으로 中·高學校의 國史를 獨立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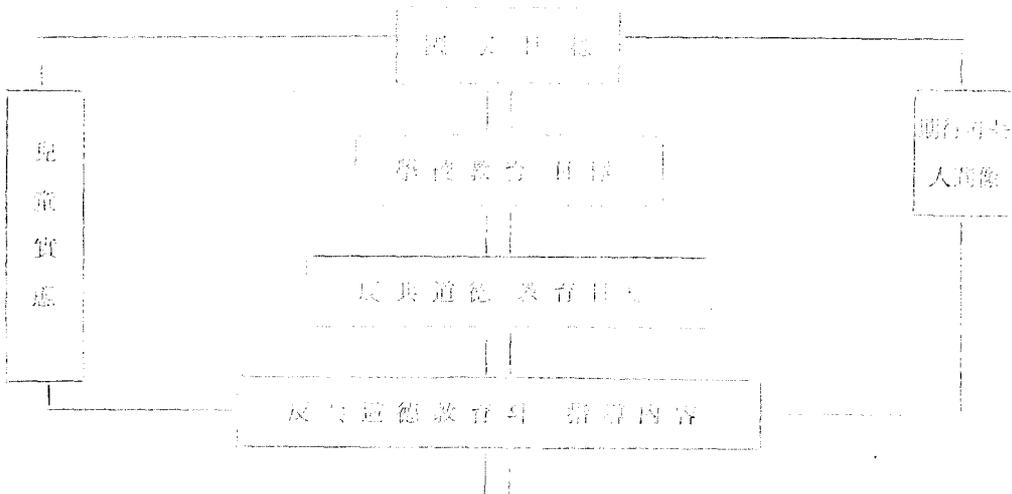
## 2. 反共道德 教育의 強化

反共安保 教育을 위한 各 學校에 反共部가 設置運轉되어 反共 時事教育이 철저히 이루어졌고 그 외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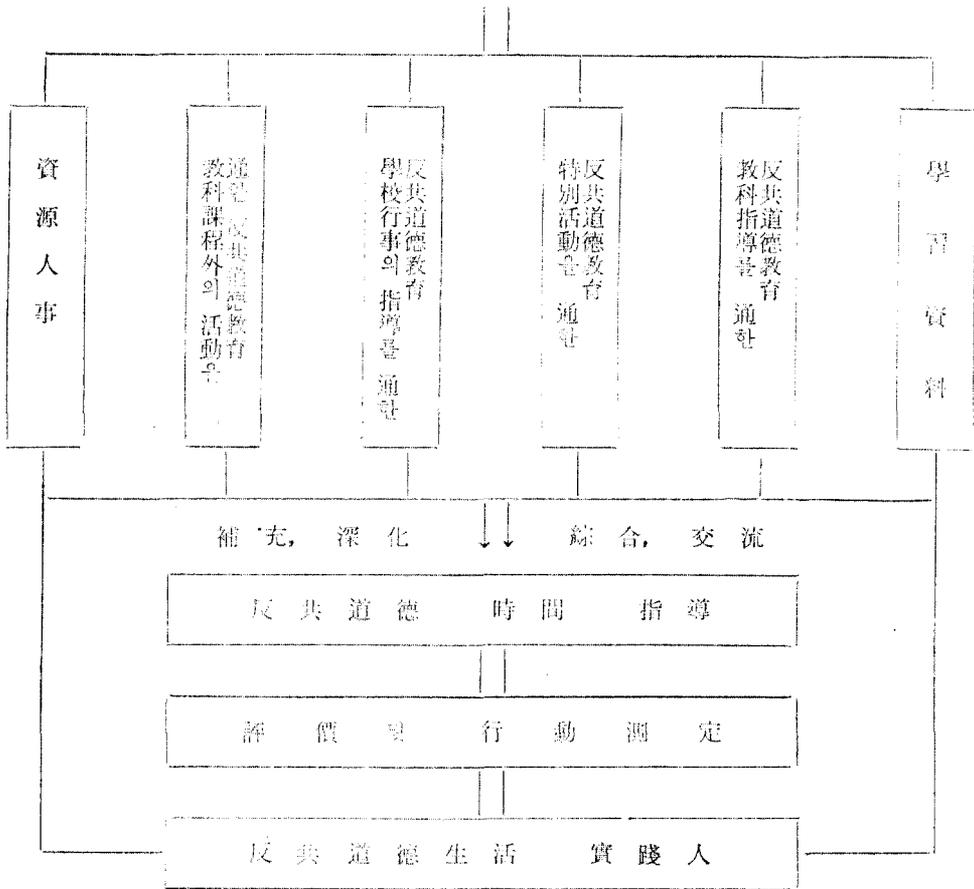
- 敎師訓練 機關
- 敎師待遇개선
- 각종직 訓練 機關
- 學生護國團의 組織을 完수했다.

本道 反共道德 教育의 實施을 實例로 들어 紹介하면, 1968年 당시 道敎育研究所 所長(申啓俊)<sup>11)</sup>은 反共道德의 指導를 物果的으로 이루어지려면 學校의 全敎育活動에서의 反共道德敎育이 計劃的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면서 反共道德의 指導目標와 內容을 學校學生實態에 따라서 再構成하는 必要性을 強調하였다. 이를 위해서 그는 例示를 통해 年間 指導目標表, 指導項目表, 指導內容表 起敎科의 調整表, 評價表等의 學校實態에 立脚하여 計劃하여야 함을 強調하였다.

그가 自定한 反共道德 教育의 全體構造는 如하 樣이다.



11) 申啓俊, 「反共道德 教育의 方向」, 교육계주 제6호, 1968, pp.34~41



또 하나의 例로서 反共館 設置運營을 中心으로한 조원중학교의 경우를 보면 68年度 朝天中學校의 當該年度 反共道德教育을 위한 努力重點을 보면<sup>12)</sup>

國旗原理指導, 國旗裝束기 指導, 國旗保存指導 (깃대, 깃봉, 국기함), 國旗에 대한 啓蒙運動, 國家元首에 대한 禮節, 愛國歌 特別指導, 反共室 設置運營, 時事教育 活動, 奉仕活動, 各種反共行事, 生活基準 實踐指導, 交通道德등이며

反共館에는 다음과 같은 內容의 자료를 蒐集作成하여 活用하도록 하는 文敎部의 예시 (1968, 反共道德 研究學校 校長會議書類에서)가 있다.

- ① 共產國家의 暗黒相 ② 一黨獨裁政治 ③ 自由없는 人民生活 ④ 6.25의 悲劇 ⑤ 북괴의 殘忍한 行패 ⑥ 自由友邦의 參戰援助 ⑦ 板門店과 休戰線 ⑧ 북괴 中共쓰런 ⑨ 間諜南派 ⑩ 再南侵의 凶計 ⑪ 民主大韓의 平和相 ⑫ 都市 農漁村의 建設相 ⑬ 産業經濟

12) 김행옥, 「反共館 設置와 反共道德教育」, 교육재주 제6호, pp.58~63.

의 發展相 14) 간접자료 수집 15) 郷土防衛 16) 國軍의 威容 17) 越南戰況 18) 浙越邊境의 活躍相 19) 아시아의 世界反共聯盟의 結束 20) 自由友邦의 團結.

1968年 上記 朝天中學校에서 蒐集한 反共館의 現況을 보면 ① 反共關係書籍 40余部 ② 광우대 100이집 ③ 간접자료 50이집 ④ 패노 40이집 ⑤ 포어, 포스터 100이집 ⑥ 기타 30이집. 그리고 當該校에서 直接 作成한 資料를 보면

- 1) 民主主義와 共產主義 比較表
- 2) 북괴는 어떻게 전복될까? 라고 있다.
- 3) 地圖로 본 世界情勢
- 4) 북괴 20年 속칭기
- 5) 노동의 苦勞 勞動者 生活(表)
- 6) 6.25當時의 兵力 比較表
- 7) 韓國의 發展相

### 3. 國民教育 憲章과 教育

1968年 12月 5日에 制定 公布된 國民教育憲章은 國家發展 또는 祖國 近代化의 促進을 위하여 政府가 國民精神의 振興 策의 策을 策으로 우리나라의 全知性을 總括하여 教育의 目標로서 制定한 것이다.

이 憲章은 前文과 本文, 後文의 것으로 分析하면 이것을 分析的으로 解學하면, 前文에서는 國民들에게 歷史的 使命感을 호소하면서 우리의 主体性을 確立伸張시키고 各層各層의 地位에서 前進할 것을 다짐하였다.

본문에서는, 첫째 健康한 身體, 둘째 學文과 技術의 習得, 셋째 個性의 伸張, 넷째 裁量정신과 창의성의 啓發, 다섯째 秩序의 효율성의 尊重, 여섯째 協同精神, 일곱째 公民的 資質의 育成, 여덟째 奉仕와 참여 精神을 育成, 또한 健全시킬 것을 강조하였다.

後文에서는 反共·民主精神과 愛國心 그리고 持久적인 勇氣와 굳건한 信念 및 勇往無前의 精神을 策으로 策하면서 策 歷史創造의 隊列에서 持久의 努力을 策으로 策을 호소하고 있다.

國民教育憲章에서 追求하는 人間像을 善추려 표현한다면 “主体的이며 科學的인 民主人”이라고 할 수 있겠다.

충남국립학교(1969년)의 例로서 國民教育憲章 理念具現 教育現態을 紹介하면, 韓國교육 發展의 方向을 示하는 立場에서 教科別 指導重點을 確立했는 데 다음과 같다.

〈國語〉 어휘적, 주석학의 立場에서 벗어나 教材에 包含되어 있는 精神的 價値를 善추한다. 〈算術〉 수리적 사고와 算術의 기능을 善추한다.

- 〈사회〉 主体性, 個性性을 중시하고 정의적 학습을 시도한다.
  - 〈자인〉 아동 스스로의 實驗, 觀察에 의한 創意力의 함양에 힘쓴다.
  - 〈체육〉 体位와 体力의 向上에 힘쓴다.
  - 〈음악〉 악전의 해석을 주로 하던 方法을 벗어나 가사와 樂곡상에서 精神的 價値를 중시한다.
  - 〈미술〉 兒童의 心理를 그대로 나타내는 創造的인 態度를 중시한다.
  - 〈실과〉 실질적인 生活方式와 生産的인 機能을 중시한다.
  - 〈반공·도덕〉 ① 맹진적 反共思想의 주입시 벗어나 生活에 直結된 반공방법의 태도를 중시한다.
  - ② 실질적인 예의와 양심도덕의 습관을 중시한다.
- 이 學校에서는 教科別 單元別로 核心지도요소를 추출하여 교과와 關連하여 核心의 지도내용을 정했으며, 個人, 社會, 國家別로 12個의 덕목을 설정하고 덕목별로 兒童·教師의 습관도덕중점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실제지도에 임했다.

윤리	덕 목	학 습 노 려	
		과 동	중 점
사 회	○ 정 질	○ 일기쓰기	○ 근무취실
	○ 건 강	○ 체력향상 (1일 1운동)	○ 직인체육
	○ 학문·기술	○ 아침공부	○ 과제제시
	○ 소 질	○ 취미활동	○ 現職研修
	○ 體 意	○ 아이너더 수집	○ 學級特色
	○ 공 익	○ 공공물 애호 (봉사활동)	○ 교실관리
	○ 절 서	○ 교실출입 질서 (교동도덕 일대정숙)	○ 출입지도 (학교지도)
	○ 능 물	○ 시간생활	○ 하루에 한 가지 일
	○ 선 질	○ 저 육 (학용품 아껴쓰기)	○ 의례준칙준수 (공책쓰기 지도)
	○ 경 애	○ 고순말 품대말 쓰기 (일사활하기)	○ 바른말 지도하기
국 가	○ 신 의	○ 약속 지키기	○ 어린이와의 약속지키기
	○ 힘 동	○ 학우돕기	○ 동학년 힘의
국 가	○ 책임·외부	○ 하루에 한 가지일, 방편활동, 학용품 갖추기, 용의단정	○ 당직근무, 아동관리, 직관제비군 활동
	○ 국가건설에 참여	○ 착산출 애용, 반공방법의 경건 태도	○ 국가시책의 지도보급

#### 4. 새마을 教育의 強化

1972年 7月 文敎部는 새마을 學校 設置 運轉을 公布했다. 새마을 教育은 새마을 運動을 성공적으로 支援하는 基礎적인 底力形成의 教育이지만 敎育史的 見地에서 본 그 類型은 學校의 地域社會의 關係를 強調할 것으로서 1950年代의 「地域社會 學校」와 1960年代의 「鄉土 學校」의 性格과 그 軌跡을 같이 한다.

敎育史的으로 볼 때 地域社會學校는 傳統的 學校의 敎科書中心, 앞서문원의 주위村 敎育의 基礎에 대한 單方面的 見解와 進歩主義 敎育사조의 片斷적인 兒童中心主義 敎育에 대한 單方面的 見解를 基礎로 하여 學校敎育의 價値를 地域社會의 開發과 發展에 두고 이 價値의 實現에 맞도록 學校運轉의 方向을 決定하는 학교이다.

Olsen은 地域社會學校의 特性을 다음과 같이 7가지 항목으로 지적하고 있다.

- ① 同地域社會의 現在의 生活를 向上시킨다.
- ② 地域社會를 學習의 現場場으로서 사용한다.
- ③ 學校施設을 「地域社會의 센터」로서 사용한다.
- ④ 生活의 基本的 過程과 問題를 中心으로 敎育課程을 構成한다.
- ⑤ 學校政策과 敎育計劃에 주변을 참여시킨다.
- ⑥ 지역사회 여러 機關의 調整의 役割을 하는데 指導的 位置에 선다.
- ⑦ 모든 人間關係에 있어서 民主主義를 행사하며 또한 이를 증진시킨다.

우리 나라는 地域社會學校를 “향토학교”라고 命名하고 1961年 文敎部가 주관, 【敎育學者들의 모임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 ① 鄉土學校는 직접으로 人間形成을 통하여 社會의 向上 改良에 이바지한다.
- ② 鄉土學校는 가장 가까운 사회를 活動의 터로 하되 항상 보다 넓은 사회의 需要와 關係를 고려하여 全體的으로 關聯이 긴밀한 活動을 한다.
- ③ 鄉土學校는 長期的 性格을 띠어 사회의 基本問題 혹은 重要問題와 短期的인 긴급한 社會 問題를 아울러 考慮한다.
- ④ 鄉土學校는 社會가 傳達更新해 온 基本的인 文化財의 學習을 考慮한다.
- ⑤ 鄉土學校와 社會(특히 향토사회)와의 關係는 相互의이며 또 서로 惠澤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⑥ 鄉土學校는 鄉土社會과의 建設的인 關係를 造成 維持함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한다.
- ⑦ 鄉土學校는 鄉土社會 改善을 위한 活動의 中心的 “터”로서 제공된다.
- ⑧ 鄉土學校는 향토사회 개선을 위한 諸活動에 있어 다른 鄉土社會의 기관이 할 바를 총

문의 考慮하여 學校가 村 마을 中心的으로 定한다.

⑨ 郷土學校는 그 生活 環境에 根據 民主主義的 過程을 강조한다.

⑩ 郷土學校는 地域社會가 學校가 가진 모든 인적 物적 資源을 有効적절하게 利用한다

⑪ 郷土社會는 多樣性 있는 教育方法을 採擇하여 가장 큰 學習效果를 가져오도록 해야 한다.

⑫ 郷土學校는 향토사회 의 特殊性을 考慮하여 적용해야 한다.

⑬ 郷土學校는 사회의 필요와 問題의 움직임에 민감하여가 하며 여기에 적용하여야 한다.

⑭ 郷土學校는 학교자체가 가진 제한과 향토사회에 따른 制限을 충분히 고려하여 現狀에 立脚한 計劃을 수립하여야 하며 어떤 理想型을 급격히 쫓아서는 안된다.

이와 關聯하여 文敎部는 郷土學校 建設을 의도로 하는 獎學方針을 設定하고 14명의 국내 教育學者들의 도움을 받아 “郷土學校란?” 冊者를 내어 郷土學校의 性格을 具體的으로 밝히는 등 향토학교 건설을 위하여 관심을 기울이나 現存 各급학교에서는 더욱 더 이 방면 에 努力을 集中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地域社會學校, 郷土學校의 建設을 위한 努力은 1970年代에 들어와서 새마을 運動과 더불어 「새마을教育」으로 集約結實되었다.

文敎部가 設定한 새마을 教育의 目標과 方針을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目 標

國民教育憲章의 理念아래 學校教育을 通하여 學生과 郷土民에게 새마을 정신을 함양하고 향토개발과 국가발전에 공헌한다.

### (2) 方 針

가) 教育課程 運營은 郷土社會 調查를 基礎로 郷土化하고 그 郷土社會의 基本的인 問題 解決을 中心으로 運營한다. (교육과정)

나) 學習指導는 郷土社會의 모든 인적, 文化的, 物的 資源을 活用하여 多樣化한다(학습지도)

다) 勤勉·自助하고 協同하는 새마을 精神의 함양과 合理的, 能率的, 生産的인 生活氣 風을 造成하기 위하여 校내의 생활을 計劃的, 組織的으로 指導한다. (생활지도)

라) 學校는 郷土社會의 學校에 다니지 않는 兒童 및 未進學 青少年과 成人 全體의 教育을 위한 각종 기회를 제공한다. (성인교육)

마) 學校는 教育的으로 計劃된 奉仕活動을 전개하여 郷土社會 開發에 적극 참여한다. (봉사활동)

사) 學校는 그 향토사회 의 科學, 生産技術의 振興을 通하여 所得증大를 위한 지도와 시 場적인 役割을 한다(생산교육)

(자) 學校은 모든 社區의 鄉土社會 開發을 위한 諸活動의 中心으로 개발한다. (학교의 방향)

(차) 學校는 鄉土社會의 教育·文化活動을 調整하고 그 전반의 主导적 역할을 담당한다. (문화활동 주요)

(차) 새마을 教育展開을 계기로 學校教育 風土를 쇠신하고 國家發展에 直結하는 教育革新 運動으로 發展시킨다. (교육쇄신)

새마을 教育은 새마을 運動을 成功의으로 支援하는 實效적인 底力形成의 教育이다. 그 目標과 方針을 教育史的 立場에서 보면 이것이 곧 地域社會學校의 특징임을 알 수 있다. 이에 關係서 文敎部에서도 새마을 教育의 概念을, 學校水準에서 다음과 같이 이해하고 있다.

“첫째 教科學習에서 새마을 精神의 持續的인 適用方針을 模索함과 아울러 個人別로 行動 指標를 設定케 하여, 자기적도로 자기행동을 改善 變容토록 하며,

둘째 실습자원을 教材化하여 科學的이며 生産的인 산학일체의 기초능력을 높이는 등 새마을 精神을 실천 체득케 하고,

셋째 兒童 및 鄉土民을 대상으로 준거집단을 조직하여 새마을 政策의 실효적 實踐集團을 형성함으로써 同一化, 社會化를 꾀해라 한다.

### 參 考 文 獻

- 吳天錫, 民族中興과 教育, 서울, 現代教育 叢書出版社, 1973.  
 ———, 發展韓國의 教育理念 探究, 서울, 培英社, 1973.  
 韓基彦, 增補版 韓國教育의 理念, 서울大學校 出版部, 1974.  
 韓國教育開發院, 韓國教育目標의 探索, 서울, 1973.  
 柳炯鎮, 國民教育憲章의 理論과 實際, 서울, 培英社, 1969.  
 韓國教育學會, 韓國教育學 研究史, 서울, 1973.  
 ———, 韓國教育學會 20年史, 서울, 1973.  
 文敎部, 國民學校 教育課程 解說, 서울, 교육보서부작성국서, 1963.  
 제주보교육위원회, 教育濟州, 1~42호.